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신청 쉬워진다

북전주세무서-진안-무주-장수군, 국세민원증명 간편 발급 업무협약 체결

진안군(군수 전춘성)은 28일 군청 상황실에서 북전주세무서(서장 장성우), 무주군(군수 황인홍), 장수군(군수 최훈식)과 함께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인 생생카드 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북전주세무서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발급 신청에 필요한 국세민원증명을 진안·무주·장수군에 일괄 제공해 여성농업인이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은 도내 여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인 경우 연간 1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여성 농·어업인이 생생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휴대폰을 통해 국세민원증명을 발급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왔다.

하지만 협약체결 이후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생생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 국세민원 증명발급 동의만으로 세무서 방문 없이 증명서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납세서비스 취약층에게 직접적인



진안군은 23일 군청 상황실에서 북전주세무서, 무주군, 장수군과 함께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인 생생카드 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황인홍 무주군수, 장성우 북전주세무서장, 전춘성 진안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됐다.

이번 상호협약으로 매년 약 8,000명의 진안·무주·장수군 생생카드 지원 대상자들이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납세서비스 취약층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협약식에서 전춘성 진안군수는 "세무서와 지자체 간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소규모 HACCP 인증업체 계측장비 자체 검교정 지도

무주군, 검교정 시간·비용 줄여 소득 증대 도와

무주군은 농가형 소규모 HACCP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계측장비 자체 검교정지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체 평가서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는 일정이 일부해 계측장비와 가공설비, 저온저장고, 냉동고, 검교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공업체를 돋기 위한 것으로,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공인기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운도계·분동(저울·추) 등의 계측기 검교정 인증 성적서를 발급받아 업체 유보 장비와 비교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가공업체는 개별적으로 성적서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 및 경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소규모 가공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울과 살균기, 농축기, 저온저장고 및 냉동고에 설치된 운도계의 자체 검교정지도를 병행해 HACCP 관리 역량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민선히 생활지원 팀장은 "소규모 가공업체의 경영 자립률을 높는 한편, 안전한 먹거리를 제조할 수 있도록 지도해 무



주군에서 생산하는 가공품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적정한 설비 선정과 가공 방법 및 청법 절차 등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찾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지난해에도 수요 조사를 통해 4개 업체를 지도했으며 올해는 대상과 분야를 확대할 방침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은 농가형 소규모 HACCP인증업체의 검교정 관련 지도뿐만 아니라 소규모 농식품가공 창업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도 가공 상담 및 지도를 진행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98개소 시설물 대상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실시

진안군은 4월 22일~6월 21일까지 총 61일간 관내 98개소 시설물에 대해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4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집중안전점검'은 사회적 안전 운동으로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지자체,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 안전관리 실태 점검으로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건축, 교통, 어린이 이용, 숙박, 복지, 다중이용, 판매 등 10개 분야에서 인명사고 및 재산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98개소 시설물에 대하여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참여해 위험 요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험 요소가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 보강 예산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농어촌버스 이용 편리해진다

무주군, 5월 1일부터 통합노선 분리 개편·운행

무주군이 5월 1일부로 무주장여객(주) 농어촌버스 운행 노선을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군과 진안군, 장수군 지역을 통합 코스제로 운행하던 것을 지역별로 노선을 분리해 운행 할 예정이다.

무주군은 기존 통합 코스제 장거리 노선을 무주읍 공용버스터미널을 기점으로 무풍과 설천, 적성, 안성, 부남 행 단거리 노선으로 개편했다. 분리 노선의 6개 읍·면 미들밸 운행 횟수 및 시간대는 최대한 전과 비슷하게 유지함으로써 기존 이용 승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또 무주읍 공용버스터미널을 기점으로 장수군(점점·장계면)과 진안군(종점·안천면)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개편했다. 이는 통합노선을 분리·개편한 것으로 농어촌버스 차량 1대의 운행 거리와 운행 시간, 차량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서 주민 불편이 커 노선 분리라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노선 분리 운행을 통해



내실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될 거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 임대형 스마트팜 건설 현장 점검

최훈식 장수군수는 지난 22일 장수읍 두산리 일원에 조성 중인 장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의 연계사업인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사업의 진행 상황 및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사업은 최근 이상고온, 국지성 호우 등 기상이 변 증가로 저탄소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열을 활용해 히트 펌프를 가동하는 방식이다. 군은 스마트팜 저탄소 에너지 공동 이용시설이 완료되면 기존의 보일러



대비 냉난방비를 70~8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저탄소 에너지 공동 이용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장수군 스마트팜 입주자들의 운영비 및 경비를 절감해 투자금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는 만큼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 25일까지 대표상징물 전국민 선호도 조사

장수군이 오는 25일까지 대표상징물(CD)에 대한 전국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지난 1월부터 전문가 용역 및 내부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장수군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미래 비전이 반영될 새로운 상징물 개발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조사로 지난 두 번의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기본 디자인 안에 대

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심벌마크를 선정하고 오는 10월 5일 군민의 날에 선포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새 대표상징물은 '장수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공포 후 사용할 예정이다.

조사는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공보사이트)과 오프라인(학교, 시장, 터미널, 축제 등)으로 진행된다.

/장수=고판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마무는 모든 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 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펜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지역 소식통

진안군, 가족 미니명랑 운동회 사전접수 조기마감

진안군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미니명랑운동회 '너랑 나랑노랑'을 개최한다. 올해 2회째를 맞는 '너랑나랑노랑'은 오는 5월 15일 진안군 마이산북부 산악초타운에서 진행되며 봄피크닉, 미니명랑운동회, 먹거리부스는 물론 미니놀이기구, 버블매직쇼, 빼airo, 사진화소, 봄꽃팔찌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커스텀카킹 만들기 등 다채로운 놀거리로 구성돼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의 가정의 문이 쇄도하는 등 행사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행사 인기와 올해 사전홍보 효과에 힘입어 접수 하루만에 당초 계획했던 300명의 사전접수 인원이 초과됨에 따라 진안군은 22일 접수 첫날 당일 조기마감을 공지했다.

진안군은 산악초타운 잔디광장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접수인원을 설정하고, 안전요원 배치와 보험가입 등을 통해 행사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장접수를 통해 행사당일 미니놀이기구, 체험부스, 피크닉 등은 사전 접수와 무관하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고원몰 활성화 위한 체험관광상품 마케팅 추진

진안군이 군 직영 온라인쇼핑몰인 진안고원몰의 활성화를 위해 체험관광 상품 마케팅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를 위해 23일 산악초타운에서 농축산유통과 먹거리정책팀 주재로 체험관광상품 실무 운영자와 관련 부서 공무원 등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협업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군 관계자는 체험마을 공동체 관계자 등 실무 운영자들에게 체험관광상품 입점 시 예약, 결제, 정산의 과정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사고 싶은'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과 홍보 방안 등 미케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나눴다.

진안군은 진안고원몰 내 체험관광상품의 입점시기를 5월 초를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